

중재 실패... 파국 치닫는 與野

한 "다수결 돌파 고려" 민주 "국민적 저항" 29~30일께 국회의장 직권상정 처리설 부각

국회가 파국을 향해 치달고 있지만 해법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4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선진과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서 직권 중재에 나섰지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또 권선택 대표도 이와는 별도로 민생법안과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안은 연내에 우선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의 제안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제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성탄절 이후 쟁점법안의 강행처리를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적 원칙인 다수결에 의한 돌파를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남은 기간 대화와 타협을 끝까지 모색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재가 마지막까지 실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할 뜻을 비쳤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일체 대화에 불응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상황을 자꾸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상정으로 몰고가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처음으로 정가에서는 오는 29~30일께 분회의에 쟁점법안이 직권상정돼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저지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국회는 다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적 대립 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성탄절 기간에도 상임위 봉쇄에 나서는 한편 성탄절 이후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실력 저지기로 재확인했다. 또 전날에 이어 국회의장 공관을 다시 항의방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실에 먼저 들어와 위원장석과 주변 좌석에 앉아 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운영위 법안처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뒤 의사봉을 운영위 직원에게 치우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강경투쟁 후 지지율 상승

5.1%P 올라... 한나라는 4.7%P 하락

민주당이 강경투쟁으로 입장을 선화한 이후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주간 정례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7%P)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7%P 하락한 34.5%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5.1%P 상승해 24.2%로

올라갔다. 민주노동당은 전주 대비 0.2%P 하락한 9.6%를 기록했으며 자유선진당(4.0%), 진보신당(4.0%), 친박연대(3.4%), 창조한국당(2.2%)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10%대에 머무르던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단독 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인한 정국 경색이 여당에는 불리하게, 야

당에는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보인다. 즉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의 원인에 대해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는 국민이 보다 많은 때문에 반사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외통위 회의장 폭력사태'에 대해 '한나라당 책임'이라는 응답이 48.1%로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 33.7%보다 높았고, 쟁점법안들의 한나라당 연내 단독처리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로 '공감한다'(31.2%)는 응답보다 높았다. 또 민주당이 강경투쟁 모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지지층이 복귀,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 당내의 평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野, 포스트 성탄절 결전 준비 나서

한, 법안 처리 강행 '비상 대기령'

민주, 직권상정 봉쇄 작전 강도 높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5일 크리스마스 이후 벌어질 법안 처리 전쟁을 앞두고 결전 준비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24일 의원들에게 주말 없는 비상 대기령을 발동하며 법안 연내 강행처리의 의사를 확실히 했고 민주당은 크리스마스를 반납한 채 봉쇄 작전의 강도를 높였다. <한나라당>=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크리스마스인 내일 하루 쉬고 모레(26일) 나와달라"며 "주말에도 약속을 한 것이라면 좋겠다"고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방안 범위, 처리 일정 등을 당 지도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며, 지도부는 연내 처리할 법안을 오는 26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의 원칙을 정했다"며 "첫째 경제살리기 법안, 둘째 예산 세출 부수 법안, 셋째 헌법 불합치 및 위헌 해소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개혁 법안의 경우 여론의 지지가 높은 법안이 처리의 원칙"이며 "과거 1996년 노동법과 같이 계층의 결집을 가져올 만한 법안의 처리는 가능한 한 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태 대표도 "이제 야당은 승복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아직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방안 범위, 처리 일정 등을 당 지도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며, 지도부는 연내 처리할 법안을 오는 26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에 관계없이 국민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치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우선 크리스마스에도 당면 체제를 가동,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 정부위 접거를 이어가는 등 방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7일째 접어들어 중진 국회의장실을 상황실로 계속 가동 중이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나리오별로 대응 각본을 마련, 법안 저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김 의장이 심사 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할 경우 한남동의 장공관과 분회회의장 점거 등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에 앞서 26일부터 전(全) 상임위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회는 대통령과 한나라당, 국회의장의 합작품"이라며 "MB의법에 협조할 수 없으며 확실하게 투쟁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그는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에 관계없이 국민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치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우선 크리스마스에도 당면 체제를 가동,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 정부위 접거를 이어가는 등 방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7일째 접어들어 중진 국회의장실을 상황실로 계속 가동 중이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나리오별로 대응 각본을 마련, 법안 저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김 의장이 심사 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할 경우 한남동의 장공관과 분회회의장 점거 등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에 앞서 26일부터 전(全) 상임위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도 전투모드"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무소속 김일윤 민주당 김세웅 의원직 상실

"중앙에서 동지들이 거대 여당에 맞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즐겁게 먹고 마실 순 없죠."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지역의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들이 송년 모임을 줄줄이 취소했다. 24일 시·도당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예정됐던 송년 모임이 취소된 까닭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을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정국이 잔뜩 얼어붙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다. 위상부 광주시장 사무처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민주적, 반시민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어 중앙당과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두 '전투모드'라며 '마음으로나마 응원을 보내고 비장한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사무처장은 "시·도당은 실무 차원의 중무직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연초에 있을 단배식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김세웅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일윤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선거 사조적인 '경주시 읍·면·동 책임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살포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세웅 의원은 지난 1월14일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인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열 테이블 손님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가운데 지난 11일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이날까지 모두 4명이 '금배지'를 빼앗겼다.

이 외에도 10명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여기에 선거법 위반 사범은 아니지만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까지 더하면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의원은 현재 11명이다. 이들은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4명(구본철·윤두환·양형관·박종희), 민주당 2명(정국교·김종률), 친박연대 3명(서청원·양정래·김보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1명(최유철)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명의 의원 가운데 현재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의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한나라당 홍장표·유재중 의원 등 3명이다. 징역 1년이 구형된 홍 의원의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강 의원의 선고 공판은 31일이며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유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예정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본일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강!
신 권식 교수 서울 강남, 노량진 출강!!
이건호 교수 서울 중로, 분당 출강!!
이유중 교수 서울 노량진, 분당 출강!!
장경중 교수 현, 세무사 9년 세법 강의!!

주목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진도 개강 1월 2일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교육보험 환급과정
국비지원 개강일정
본원 ☎ 227-8003 전라도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 12월 무료청강 환영합니다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월 28(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기본서 첫 진도 시작반 국비지원 재직자반은 개강일 전에 수강신청 해야합니다.

국비지원 교육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전액 60명

목포점 개강 1월 28일
하당지구 목포기동병원 앞 대성학원 3층 건물
(061)277-8111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45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 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을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주점 ☎ 361-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주점 ☎ 268-8111
● 박정아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

=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강!!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

7.9급 공무원 특강

30주부특별반 행 교세관감법검마철출교보보복전소기단
40주-이안 생활리강의중 정 육무세사원찰약공관정건호지산방술과
10기능직클
● 일반상식,한국사,2과목●

'09년 시험안내
● 시험일차 : 9월 24일 4월 11일, 2차 5월 23일, 7월 19일 5월 시험
● 채용인원 : 국가직 3,287명·지방직 총 4,242명 도·시
● 시험장 903, 경기 685, 전남 309, 광주 119, 전북 206명

개강 1월 28일(주,아반도입)
(현재예약접수중)

내년 소방직(시·도별 채용인원)
● 서울 225명, 부산 72명, 대구 81명, 인천 258명, 광주 80명
● 대전 78명, 울산 82명, 경기 250명, 강원 60명, 충북 110명
● 충남 128명, 전북 80명, 전남 50명, 경북 171명, 경남 135명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mdgosi.co.kr